‘꿈의 캐스팅’ 송혜교·박보검 주연 ‘남자친구’ 아쉬운 마무리

이름값 못한 ‘남친’…시청자들한테 차였다

극과 극 환경 설정…공감 부족
잔잔한 전개…정통 멜로 한계
속도감 길들여진 시청자 외면


톱스타 송혜교와 박보검을 주연으로 내세운 드라마 ‘남자친구’가 초반 높은 화제성과 달리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는데 실패하고 종영한다. 사진제공 | tvN

연기자 송혜교와 박보검이 주연한 케이블채널 tvN ‘남자친구’가 24일 종영한다. 하지만 이들이 2년 만에 복귀해 건네받은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1월 28일 첫 방송한 드라마는 두 사람의 출연 소식을 ‘꿈의 캐스팅’이라 불리게 하며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아쉬움 가득한 결과로 막을 내린다.

‘남자친구’는 송혜교가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를 끝내고 이듬해 동료 송중기와 결혼한 뒤 선택한 첫 드라마였다. 박보검 역시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인기 정점을 찍고 2년의 공백 끝에 돌아왔다.

이들이 각자 제 몫을 해냈기에 아쉬움이 더 걷혀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혜교는 트레이드마크로 꼽힌 밝고 쾌활한 이미지에 처연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본 적 없는 여성이 지닌 내면의 아픔을 과도한 감정 표출 없이 담담한 어조와 표정으로 표현해 긴 여운을 남겼다. 박보검은 그만의 싱그러운 미소와 ‘연하남’ 설정으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첫 현대 멜로 장르를 무난하게 소화했다.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아쉬움을 남긴 요인으로는 시청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이야기가 첫 손에 꼽힌다. 앞서 ‘딴따라’ ‘예쁜 남자’ 등을 집필한 유영아 작가는 ‘남자친구’에서 정치인의 딸이자 호텔 CEO인 여성과 자유로움을 꿈꾸는 청년의 신분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를 그렸다. 사랑의 감정으로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통속적이고 진부하지만 순수함을 강조한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극과 극의 환경 자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큰 감흥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모두를 설레게 하며 회자될 만한 대사도 찾기 어려웠다.

연출자 박신우 PD도 송혜교와 박보검의 매력을 십분 활용하는 연출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전작인 2016년 SBS ‘질투의 화신’에서 남여 주인공의 심리를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연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박 PD는 당초 ‘남자친구’를 정통 멜로 장르와 잔잔한 전개의 틀로 접근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위기와 갈등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속도감 있는 흐름에 길들여진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청률로 드러났다. 2회가 10.3%(닐슨코리아)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7~8%대에 머물렀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도 10%를 넘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그 출연진과 제작진의 ‘이름값’만으로도 존재감이 빛을 발하리라는 기대가 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뽀글이 파마’도 불사 엄지원의 파격 변신

〈영화 ‘기묘한 가족’〉


엄지원

6년 만에 코미디로 돌아온 배우 엄지원의 선택은 ‘파격’ 그 자체다. 외형적 변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내보인 적 없는 처절하리만치 망가지는 코미디로 과감하게 나선다. 최근의 행보와 비교하면 새로우면서도 반갑다.

엄지원은 2월14일 영화 ‘기묘한 가족’(감독 이민재·제작 씨네주오스카10스튜디오)을 내놓는다. 조용한 마을을 뒤흔든 좀비들에 맞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가족의 이야기다. 기존 좀비물을 비틀어 코미디를 접목한 시도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엄지원의 도발적인 변화가 먼저 눈길을 붙잡는다.

엄지원은 극의 배경인 주유소집의 맏며느리. 남편 정재영, 시아버지 박근형, 시동생 김남길, 시누이 이수경을 단번에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오랜만의 코미디 영화인 데다 개성 강한 캐릭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외형적 변화도 망설이지 않았다. ‘뽀글 펌’ 헤어스타일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인물 구현을 위해 영화 촬영지인 충북 보은의 시장을 돌며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직접 구입해 입기도 했다.

“엄지원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이고 싶었다”는 그는 “영화적 재미도 중요하지만 리얼리티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엄지원의 코미디 도전은 2013년 영화 ‘박수건달’ 이후 처음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후보에도 못 든 ‘버닝’…보수적인 아카데미의 벽

뉴스 인사이드

가족·기독교 정신 중시 보수성 강해
북미 평단 호평 불구 최종 후보 탈락

영화 ‘버닝’이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최종 후보를 노렸지만 불발됐다.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후 57년 동안 다양한 영화로 후보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칸을 비롯해 베니스, 베를린 등 유수 영화제 수상 등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얻으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럼에도 유독 미국 아카데미상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주관하고 시상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 및 심사위원들의 성향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소속 회원은 약 6000여명. 이 가운데 외국어영화상 출품작 중 ‘의무관람’ 편수인 12편을 본 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예비후보작을 꼽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영화상 집행위원회가 최종 후보작을 선정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상은 이를 주는 이들과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향방이 갈리기 마련이다. 작품적 완성도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영화예술아카데미협회 회원들은 대체로 비교적 연령층이 높고 보수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성향과 전통적 가치에 한국영화가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영화평론가인 정수완 동국대 교수도 “제작자, 감독, 배우, 비평가 등 영화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관객도 회원으로 참여한다”면서 “이들은 가족주의, 기독교 정신 등을 중시하며 비교적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왔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과 가치 기준에 가까운 영화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버닝’의 경우 올해 후보작으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했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북미지역 평단을 중심으로 쏟아졌던 호평이 그 하나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비평가와는 또 다른 시선을 지닌 아카데미상의 보수적 색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영화의 아카데미상 도전과 진출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데 시선을 둔다. 전 평론가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한국영화를 변방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며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되거나 수상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해외시장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화외교적 측면에서 좀 더 긴밀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